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La traviata



학습 목표 악곡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분위기를 느끼며 감상할 수 있다.

전주곡 아름답지만 슬픔을 띤 가락이 극의 내용을 암시한다.



제1막 비올레타 집 거실

파티에서 알게 된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화려한 '축배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합창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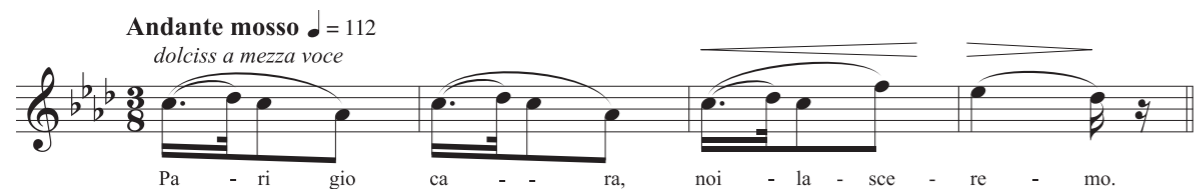
제2막 파리 교외의 시골집

알프레도와 비올레타는 사람들을 피해 파리 교외에 보금자리를 꾸몄으나,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찾아와 비올레타에게 알프레도와 헤어질 것을 부탁한다. 비올레타가 떠난 후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오해하여 절망하는 알프레도에게 아버지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자며 '프로벤자 내 고향'을 부른다.



제3막 비올레타의 침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비올레타는 '잘 있으라 지난날의 즐거움이여'를 부르며 자기 신세를 서러워한다. 이때 알프레도가 나타나 파리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즐겁게 살자며 '파리를 떠나서'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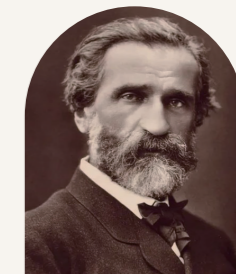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등장하여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하지만,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다.

작곡가

베르디(Verdi, Giuseppe Fortunino Francesco) | 1813~1901 /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로 화려한 선율, 관현악의 극적인 진행, 충실한 무대 효과 등을 통하여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시켰다. 대표작으로는 '리콜레토', '아이다', '나부코', '일 트로바토레' 등의 오페라가 있다.



악곡 해설

1852년 파리를 방문 중이던 베르디는 원작 뒤마 피스의 연극 '카멜리아(춘희)'를 관람하고 오페라로 만들기로 작정한 지 4주 만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완성하였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귀족이 아닌 당시 사회에서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받는 인물을 다루었고 그들의 고뇌와 슬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등을 작품을 통해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는 1948년 명동 시공관에서 '춘희'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는데, 당시 오페라 '춘희'는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유럽의 오페라였으며, 당시 많은 인기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작품 줄거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 여성 비올레타와 귀족 집안의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을 줄거리로 다룬 3막 4장의 오페라이다. "라 트라비아타"는 '길을 잃은 여자'라는 뜻으로 주인공 비올레타를 가리킨다.

1 악곡의 분위기와 주인공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대표 아리아를 감상해 보자.

정리와 평가 ... 악곡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분위기를 느끼며 감상할 수 있는가?

